

다음 공연 안내

춤으로 그리는 동화
<옹고집전>

4. 3.(수) 19:30
4. 4.(목) 11:00, 19:30
4. 5.(금) 11:00, 19:30
4. 6.(토) 11:00, 14:00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

주최 | 대전광역시 주관 | 대전시립무용단



dmdt.artdj.kr



대전시립무용단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35 대전예술의전당 내

문의 042)270-8352-5



2024. 2. 23.(금) 19:30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

주최 | 대전광역시

주관 | 대전시립무용단

미래를 열어갈 한국 예술의 중심!

한국무용의 중심으로 도약과 생동감이 넘치는 대전시립무용단!!!

1985년 창단된 대전시립무용단은 1990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아시아 민속축전 참가를 시작으로 프랑스 디종 축제, 미국, 멕시코, 중국, 일본, 호주, 세르비아, 이탈리아 등 각종 국제 페스티벌 행사에 한국 대표로 초청받아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유감없이 선보였다.

2011년에는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으로 중국의 서안과 항저우에서 한국의 매력적인 춤사위로 중국 대륙을 감탄시키며 우리 춤 국제 브랜드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고, 2016년 외교부 주최 스페인 수교 50주년 기념 주요 외교 계기 기념 문화행사에 한국 대표 무용단으로 선정되어 스페인 지역을 순회하며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축하공연을 통해 한국 전통춤의 진수를 선보이며 세계인에게 지역 무용단의 저력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2023년 외교부 해외 파견 문화예술공연단으로 선정되어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초청공연에 한국의 미(美)를 선보여 현지 교민들과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대전시립무용단은 39년 동안 쌓아온 저력을 바탕으로 대전시민과 호흡을 함께 하며, 과학, 문화, 행정, 교통중심 도시의 면모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연간 50여 회의 공연으로 지역 춤 문화 발전을 견인하며, 한국 춤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으며, 대전시민을 비롯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문화예술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2021년 김평호 예술감독 영입으로 한국무용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으며, 한국인의 숨결 속에 감추어진 역동성과 삶에 대한 열정으로 한국의 대표적 무용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감성이 충만한 춤으로 역동적이고
완성도 높은 창작 작품,
시대의 영혼이 살아있는 감동의 무대...
예술적 창의력은 위대하다.”

김 평 호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

樂, 歌, 舞一體의 가치를 표방하며, 수많은 예술적 경험들과 다양한 노하우의 축적으로 전천후 예술가로서 큰 예술적 성과를 이루고 있다. 단원으로 출발해 지도위원, 훈련장 등의 역할과 창원, 청주시립무용단 상임 안무자로서 수많은 작품의 안무와 공연으로 다양한 성과를 이뤘다. 또한 중국 동북 사범대학과 경주 대학교에서 교수로서도 교육자의 역량과 김평호류 ‘남도 소고춤’ 브랜드 개발로 한국무용의 교본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폭넓은 활동으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연습지도자



강 영 아

- 충남대학교 무용학과 박사과정
- 충남대학교 무용학과 출강
- 무형문화재 제20호 살풀이춤 이수자
- 제1회 세종대왕 전통예술경연대회 문화체육부 장관상



구 서 영

- 대전시립무용단원, 경기도립무용단원 역임
-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미래교육원 강사 역임
- 국가무형문화재 제21호 승전무 이수자
-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전수자

독백(그리움) II

안무 및 출연



이현수

출연



이상호(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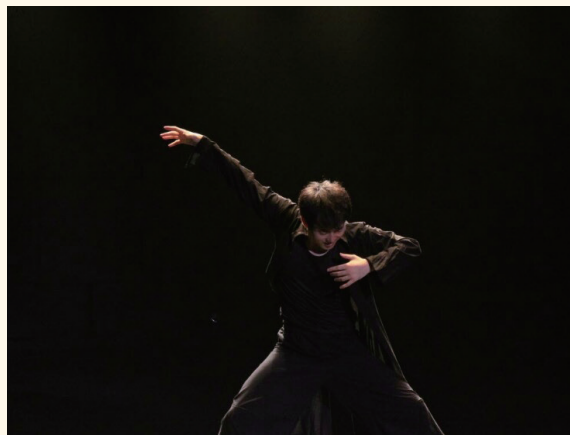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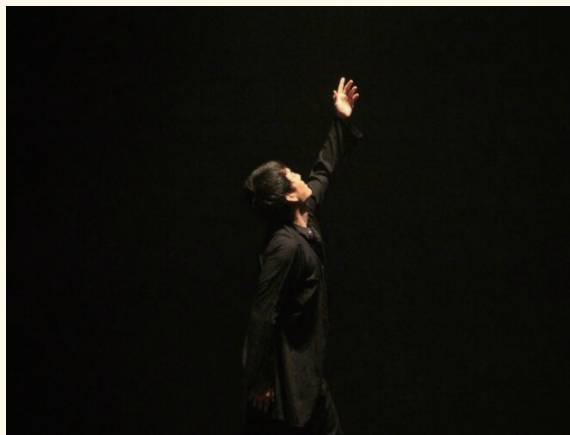
연출 · 진행



임자영

음악 시온성

영상 김장연



안무의도

문득..

멍하니 바라본 하늘, 구름에 가려진 달처럼 흐릿한 기억이 스며든다.

나에게도 소중한 존재가 있었나?

어린 시절의 기억을 잔잔히 회상해 본다.

잊고 지내온 흐릿한 기억 속의 잔해들..

깊숙이 묻어 두었던 기억의 파편이 떠오른다.

어린 시절의 짧은 추억이 남기고 간 그에 대한 그리움들을..

소중한 존재를 잊고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그렇게 그를 가슴 한 곳에 다시금 묻어두며 이렇게 혼잣말을 해본다.

나에게도 소중한 존재가 있었는데..



몽유병

안무 및 출연



구재홍

출연



김지원



유재현



나소연(객원)

진행



김설혜

음악 조충호

의상 민천홍



안무의도

한동안 심한 악몽에 시달렸다.
그에 수반되는 불면증, 병원에서 받은 이름 모를 알약을 먹고
늦은 새벽에 적막함이 두려워서 늘 빗소리를 틀어 놓는다.
어느새 나의 몸은 현실과 환상의 경계선상에서 흐느적거리면서
거리를 부유하고 웅크리고 앉은 채 떨고 있는 아이가 된다.
하늘 저편에서 우레처럼 소나기가 빗발치고 있고 집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나는 두려움에 물들어 암흑 속을 내달린다.
빗물은 나의 몸에 스며들어 혈관을 타고 들어가고
피부로 빠져나와 붉은 꽃으로 피어난다.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며 내 육체는 한없이 작아지며 희미해지고 소멸되어진다.



무아(無我)

안무 및 출연



복성수

출연

대전시립무용단



이미자



곽영희



유미선



김수진



장영희



이유라



배진모



복민선



이지영



유아리



김민중

객원



박재순

국립무용단



김두수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채의병

대전시립연정국악단



박희생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송현준

대전시립연정국악단



김선영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이보름

신명풍무악



이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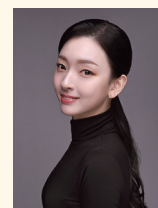
신명풍무악



복권민

신명풍무악

진행



서예린

안무의도

60세는 이순(耳順)이라 하여

‘귀가 순해져 모든 말을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한다.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쯤 하여 지나온 춤력을 한번 정리보고자 한다.

고등학교 입학 후 농악을 접하면서 지금 여기에 이르렀다.

처음부터 이 자리를 생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시간들이 쌓여 지금의 내가 되었다.

친절하지 않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꺾이고 때로는 쓰러지며 지금을 맞았다.

60년 나의 삶 자체였던 전통예술을 토대로 새로운 작품을 올려본다.

크게 이룬 것 없으나 한 사내의 60년 인생을 너그러이 봐주시기 소망한다.



DAEJEON METROPOLITAN DANCE THEATER

STAFF

조 명 김태섭(All That Stage)
무 대 감 독 김지연
음 향 감 독 박창수
영 상 감 독 김민태(퓨텍)
무대조감독 안승범 김경택 이동희
음향조감독 최아름
공 연 진 행 김성옥 김진우

사무국

사무국장 고은랑
기획팀장 이은미
홍보담당 송은교
의상담당 문다비

대전시립무용단 유료멤버십 안내

가입혜택

하나, 일년 동안 모든 공연이 공짜!
둘, 동반자 30% 할인!
셋, 공연 소식 우편, 문자 수령

가입비

개인 1인 기준 20,000원
가족 1인당 18,000원(10% 할인, 2인 이상)
단체 1인당 16,000원(20% 할인, 5인 이상)

가입방법

대전시립무용단 홈페이지>멤버십>유료멤버십>가입하기
※ 홈페이지 가입 후 유료멤버십 가입 절차 진행

가입문의

대전시립무용단 마케팅담당 042-270-8354

아름다운 동반자 대전시립무용단 후원회 (사)나빌레라

(사)나빌레라는 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몸을 화두로 살아가는 춤꾼들을 마음으로부터 후원하고 춤판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서
박수로 응원하기 위해 출발한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명예회장 이관형	회 장 김종훈
2 대회장 변기태	부 회 장 임대식
3 대회장 오한풍	사무총장 이미란

가입문의

(사)나빌레라 사무총장 이미란 010-5407-3790